호남신문의 새 로고는
타원형의 우주 안에 '태풍의 눈'을 형상화해 무한한 역동성과 함께 정의로운 언론으로 특히 사회적 약자에 더 큰 관심을 갖는 인간 존중의 정신이 배어 있습니다.

호남신문

1946년 3월 창간 제 2744호 E-mail : ihonam@naver.com 2019년 7월 16일 (음력 6월 14일) 화요일

광주시, 서·남·광산구 고분양가 관리지역 지정

주택도시보증공사에 건의 확정…국토부 분양가상한제 규정 개정 검토 중

광주시는 15일 아파트 고분양가 논란과 관련해 서구와 남구, 광산구가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광주시에 따르면 최근 일부 아파트의 분양가 급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고분양가 관리지역 지정을 건의해 서구와 남구, 광산구가 포함됐다.

고분양가 관리지역에 대해서는 1년 이내에 분양된 아파트 분양가의 100%, 1년 초과 아파트 분양가의 105% 등 기준을 심사해 고분양가 사업장에 해당되면 분양보증이 거절된다.

서구와 남구, 광산구 등 3개 구에 대한 고분양가 관리는 26일부터 적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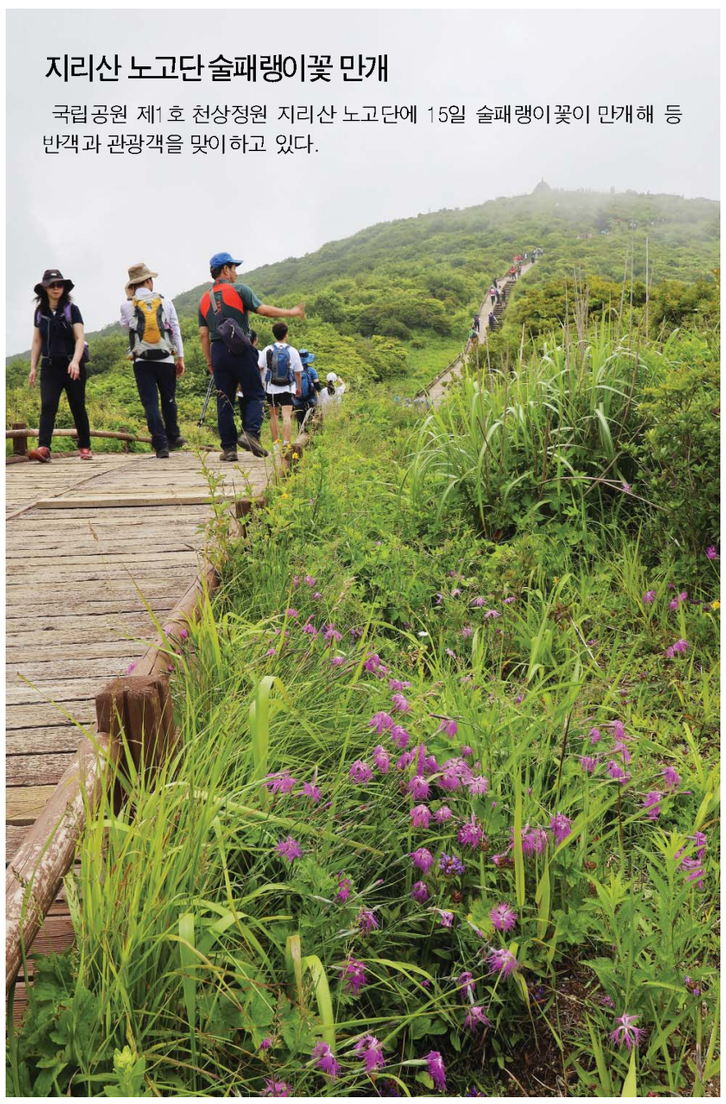
광주시는 또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이 공공택지에 건설되는 아파트에만 해당되고 민간택지 아파트는 분양가를 제재할 규정이 없는 점을 고려해 국토교통부에 주택법 분양가상한제 관련 개정을 건의했다.

문범수 광주시 도시재생국장은 "국토부가 공공택지뿐만 아니라 민간택지에 공급하는 주택에 대해서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규정 개정을 검토 중이다"며 "실효성 있는 관련 법령 개정으로 분양시장이 안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은홍 기자

지리산 노고단 술패랭이꽃 만개

국립공원 제1호 천상정원 지리산 노고단에 15일 술패랭이꽃이 만개해 등반객과 관광객을 맞이하고 있다.



전남 농가 10년 전比 총소득·부채 증가

지난해 전남지역 농가 가구당 총소득은 2009년 대비 56.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호남지방통계청 목포사무소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 농가 가구당 총소득은 3947만6000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2009년 대비 56.6% 증가한 수치다.

10년 간 연평균 농가소득 증가율은 5.1%로, 전국 평균 3.5%대비 1.6%p 높았다. 하지만 지난해 전남 농가소득은 전국 평균 농가 소득 4206만6000원 보다 6.2% 낮았다.

가계지출은 3058만9000원으로 2009년 대비 34.2% 늘었다. 이는 전국 평균 가계지출 3382만8000원 보다 9.6% 낮은 금액이다.

가계지출의 비율은 소비지출이 78.7%, 비소비지출이 21.3%였다.

지난해 전남 농가자산은 3억2651만5000원으로 2009년 대비 50.0% 증가했다. 전남 농가자산은 전국 평균 4억9568만7000원보다 34.1% 낮았다.

같은 해 전남 농가부채는 2433만4000원으로 10년 전 대비 22.1% 늘어났다. 지난 10년 간 전남 지역 농가부채는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농가 경제조사는 표본농가(전국 3000호)를 대상으로 농업경영 실태를 파악, 농업정책 수립과 각종 연구를 위한 조사이다.

김정환 기자

'가격 폭락' 천일염 존폐기로…오늘부터 생산·판매 중단

6년만에 1/3로 급락…태양광 등 전환 면적도 줄어

신안군 증도 태평염전

저염식 확산 등 소비감소로 수 년째 가격이 폭락하고 있는 천일염산업이 존폐기로에 서 있다.

염전은 수익성이 높은 태양광과 양식장 등으로 전환이 추진되면서 면적이 줄고, 천일염 생산자들은 정부의 대책을 요구하며 생산과 판매 중지를 선언하는 등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15일 신안군에 따르면 '천일염 가격 폭락에 따른 전국 생산자 비상대책위원회'는 최근 전남 목포에서 모임을 갖고 16일부터 천일염 생산·판매를 중단키로 결정했다.

이들은 "천일염 가격 폭락에도 불구하고 정부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자구책으로 생산과 판매를 중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천일염 산지 가격은 20kg들이 한 포대당 1800~2000원 선으로 지난 5월 평균 3600원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

천일염 산지 가격은 수년째 하락세가 멈추지 않고 있다.

2012년 20kg에 7900원하던 가격이 2013년 6160원, 2014년 5500원, 2015년 4600원, 2016년 3960원, 2018년 2800원으로 급락했다.

6년만에 3분의 1로 추락하면서 염전주들의 염전허가 폐지신청이 이어지고, 태양광과 새우양식 등으로 업종전환을 모색하는 등 천일염산업 자체가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국내 최초 천일염 시발지로 1948년 설립된 신안 비금 대동염전 염전주 19명은 등록문화재 해지를 요청했다. 이 곳은 2007년 등록문화재 제362호로 지정되는 등 천일염의 상징적인 곳이다.

염전의 면적도 줄어들고 있다. 신안군의 염전 허가 면적은 2017년 2832ha, 지난해 말 2801ha로 감소했다.

폐염(廢鹽) 면적이 지난 2017년 28건 89만㎡, 2018년 14건 41㎡, 올 현재 2건 9만7000㎡에 이른데 따른 것이다.

신안군 관계자는 "저염식 확산에 따른 소비 트렌드 변화와 김장 문화 변화, 김치.절임 배추 수입량 증가 등으로 천일염 산업이 위기에 봉착해 있다"면서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 등을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름 휴가는 보성에서…"

농협보성군지부 농촌 휴가 보내기 캠페인 전개

"가자 신나는 보성으로, 여름휴가 보성 농촌체험 휴양마을로 오세요"

농협보성군지부가 농촌에서 여름휴가 보내기 집중 캠페인을 전개하고 나서 관심을 끌고 있다.

보성군지부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15일부터 한 달간을 휴가철 손님 모시기 기간으로 정하고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보성군지부가 이번에 소개하는 곳은 보성강 용정권역 어울마당으로 8000여 평의 넓은 공간에다 보성강변에 위치해 가족 및 청소년 단체 등이 여름휴가를 보내기에는 적격으로 꼽히는 명소다.

어울마당은 한적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휴가를 맞은 피서객들이 편하고 안전하게 쉬었다 갈 수 있는 농촌마을에 자리하고 있어 갖가지 체험활동은 물론 숙박도 가능하다.

특히 오토캠핑장은 남녀노소와 단체 손님 등 누구든지 일시적이나마 자연인의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어 각광을 받고 있다. 어울마당은 보성군 미력면 보성강로에 위치해 있어 천혜의 자연경관을 뽐내고 있다.

서희수 농협보성군지부장은 "이번에 우리가 추천한 곳은 맑고 깨끗한 보성강변에 그림 같이 들어서 휴가철 몸과 마음의 피로를 씻고자 하는 피서객들에게 권유해도 전혀 어색함이 없을 것 같아 자신있게 권한다"며 "녹차수도 보성에서 가족 친지들과 함께하는 보람된 휴가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보성=안구일 기자